

旌義고을 (3)

김 영 돈*

目 次	
I. 머리말	VI. 住民 및 家族構造
II. 略 史	VII. 生業·經濟
III. 縣廳所在地로서의 施設·遺物	VIII. 歲時風俗
IV. 傳承文化	IX. 通過儀禮
V. 社 會	X. 要約 및 課題

旌義고을이란 15세기초에서 20세기초까지 5세기 동안 제주도가 三分統治되었을 당시 旌義縣의 도읍지였던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를 말한다.

이 글은 文化財管理局의 의뢰에 따라 필자가 조사, 보고했던 《旌義고을》(民俗資料保護區域調查報告書 第55號, 1973년 10월)의 일부인데, 《耽羅文化》第3號의 《旌義고을(2)》에 이어진다. 조사보고서 《旌義고을》이 한정부수여서 구할 길 없으매, 오늘날 이 마을의 일정구역이 政府指定文化財가 됨으로써 深層的인 조사연구가 더욱 절실하리라 믿고 同學들에게 한갓 자료로서 제시한다.

Ⅶ. 生業·經濟

城邑里는 광활한 牧野地로 둘러쳐져 있다. 성읍리의 耕地面積은 이 마을 총면적의 7.4%밖에 안되는데 林野面積은 무려 86.0%에 달한다. 따라서 城邑里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教授

는 산간농촌이면서도 많은 농가가 畜産業을 겸한다. 주민구조를 말하면서 지적했지만, 오히려 主畜副農의 주민들도 상당수 있다. 表善面의 平均戶當耕地面積은 12.21만보인데 城邑里의 평균호당경지면적은 8.89만보밖에 안된다. 경지면적이 우선 비좁은데다 氣象條件이 농사에 알맞지 못하고 농토가 기름지지 못하여 농산물 수확고는 옛부터 저조하다. 5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의 대여곡을 상당량 배정받았어야만 주민의 식량이 충당되는 형편이었다. 근래에 와서는 간신히 마을안에서 식량이 自給自足되는 편이다. 1968년에 설치된 城邑2里의 主畜園地에도 城邑1里에서 5가구가 입주했지만 그래도 가계에 여유있는 주민들을 살펴보면 축산업에 열의를 다하는 사람들이다. 주민의 의식구조를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대체로 규모있는 생업을 위한 進取的 姿勢가 아쉬운 듯하다. 이것은 역시 500년이란 오랜 세월을 정의고을의 주민으로 非生産的 閑良氣質이 전승되어 내려온 탓인 것 같다.

〈表1~5〉에 보면 果樹園 面積이 119만보로 나타나 있다. 九龍洞과 主畜園地로 올라가는 마을 북쪽부락 몇 군데에 1970년을 전후하여 감귤밭을 규모있게 마련해 놓았다. 대부분이 日本 大阪에 사는 이 마을 출신 在日僑胞 康寅成, 康泰重, 洪泰三씨 등이 마련한 것이다. 表善面內 各里의 里別 耕地面積을 보면(表1~6參照) 戶當平均耕地面積이 城邑1里보다 적은 마을은 表善里다. 그러나 표선리는 바닷가마을이므로 第1種共同漁場의 해녀작업을 비롯한 어업소득이 있으며 상업 등 주민의 생업이 다양하니 대거리가 안된다.

耕作規模別 農家家口數를 보면(表1~8參照) 3정보이상의 경지면적을 가진 농가가 불과 10戶이다. 이처럼 농업자체의 零細性을 축산으로써 만회하는 주민들이 적잖은 사실은 조사도중에도 실증되었다. 말하자면 城邑에는 여관도 없고 하숙집도 없는데 나그네를 머물게 하는 民家가 두세군데 있어 거기 投宿하다 보면 牛馬賣買를 위한 손님들이 꽤 드나든다.

農·畜다음으로 꼽히는 주민의 所得源은 근래 봄을 일으킨 油菜生産이다. 1973년에는 전례없는 생산실적을 올려서 63가마니가 팔렸고 주민의 가계가 한결 풀렸다는 것이다. 주민들 새에서도 유채시세 변동에 대하여 민감한 대화가 오가는 경우를 조사도중 번번이 목격하였다.

다음에는 靑茅 생산이다. 城邑1里와 2里 사이를 오가다 보면 실감하겠지만 문자 그대로 一望無際로 트인 牧野地가 펼쳐진다. 〈瀛洲山〉·〈좌범이오름〉·

〈백약이오름〉·〈개오름〉·〈비치미오름〉·〈成佛岳〉·〈대륙봉〉·〈새끼오름〉·〈숙찌오름〉 등이 꼭 둘러쳐있어 한 시야로 들어오는데 평퍼짐한 草野가 흰히 트인다. 거의 떠밭이다. 이 띠가 김을 말리는 데 쓰인다. 莞島地方으로 해마다 파란 때 베어서 수출되는데 72년도에는 1만2천뭉음이 나갔고(表1~11參照) 73년도에는 2만뭉음이나 팔려 나갔다. 물론 여느 제주도의 농촌에서처럼 이 마을에서도 고구마에 따른 수익 역시 대단한 것이다. 〈表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마에 따른 수익은 畜産에 따른 수익 다음인데 둘 다 2천4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다음이 油菜·麥類·靑茅의 순이다. 城邑1里의 都心地, 예전 縣廳자리 번두리에는 農業協同組合城邑分所의 農協倉庫가 있다. 64, 66 양년도에 각각 30평씩의 건물이 세워졌다. 역시 油菜, 切干共販이 주요기능이다. 1973년에는 10명 단위의 養豚作目班을 出帆시켰는데 1인당 15만원씩 용자 받아 제각기 妊娠豚 20마리씩 확보하고 이를 키우는데 分所長 崔基鍾氏는 그 기대가 대단했다. 기후탓인지 蔬菜生産이 시원찮다. 表善 5일장날 마을북판에 나가보면, 하루 두번 나가고 들어오는 버스가 나타나는데, 버스가 도착될 때 장군들이 사온 보따리 속에는 일용품 외로 소채가 꽤 끼어있다. 가게가 13개소 있다. 2백수십가구의 마을 규모로 보아서는 꽤 많은 숫자다. 里民의 氣質을 이런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모르지만 專門商品을 진열한 가게는 없고 다들 각종 잡화들이 놓였는데 별로 팔리지 않을 뿐더러 고객이 이웃 주민들이어서 외상 등으로 수익은 시원찮은 듯했다. 表善面의 집계에 따르면 面戶當平均收益은 한해 38만5천원인데 城邑1里의 호당평균수익은 35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의 信憑度 여부가 제쳐놓고라도 어차피 城邑1里 주민의 수익이면내 딴 마을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城邑1里 주민의 생업은 활기가 덜하며 경제는 아직도 零細性에서 조들리는 편이다. 濟州大學校 民俗博物館附設文化財研究會 학생들 姜榮鍾 등 십여명의 도움을 받아 상당한 시일에 걸쳐서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조사용지를 토대로 각분야의 조사를 실시했었지만, 경제조사만은 뜻대로 이를 수가 없었다. 耕地面積, 業態, 田地所有經緯, 農產物收益, 副業規模, 副業收入, 家畜種類 및 實數와 收益, 重要 農機具, 詳細한 家計 등 세분된 조사를 실시, 최선을 다했으나 그 결과가 시원찮았다. 이유는 역시 課稅 등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데서 사실과 다른 응답이 많았기 때문이

다. 다음에 참고로 表善面에서 제공한 生業, 經濟關係統計를 제시한다.

<表1-4> 土地利用 A

表善面 및 城邑一里

分類面·里	山岳	共同牧場	牛馬給水場	河川	橋梁	水源地	奉天水	湧天水	深井掘鑿	港口
表善面	27	6	12	2	3	1	20	2	2	8
城邑里	6	1	1	1	-	-	1	-	1	-

○ 1972年末
○ 資料：表善面事務所

<表1-5> 土地利用 B

城邑一里

分類事項	總面積	耕地面積	林野面積	果樹面積	其他	備考
面積	33,070反	2,454	28,410	119	2,087	○ 全國平均 戶當耕地面積 9.07反
%	100	7.4	86.0	0.3	6.3	○ 面平均 戶當耕地面積 12.21反 ○ 里平均 戶當耕地面積 8.89反

○ 1972年末
○ 資料：表善面事務所

<表1-6> 里別耕地面積

表善面(單位：段步)

里別	耕地面積				備考 (농가호수)
	畓	田	計	戶當耕地面積	
表善		4,301	4,301	7.0	606
下川		3,755	3,755	13.4	280
城邑1		2,388	2,388	8.6	276
城邑2		989	989	18.3	54
加時		5,368	5,368	17.9	300
細花1		2,910	2,910	12.8	233
細花2		1,543	1,543	10.7	143
兔山1	4	2,260	2,264	20.7	109
兔山2		2,132	2,132	15.3	139
計	4	25,646	25,650		2,140

○ 1972年末
○ 資料：表善面事務所

<表1-7> 年度別 耕地面積

城邑一里

年 度	總 面 積	耕 地 面 積
1970	33.07 _{公頃}	6,342 (段步)
1971	33.07	3,955
1972	33.07	2,388
1973	33.07	2,454

○ 資料：表善面事務所

<表1-8> 耕作規模別 農家家口數 및 面積

表善面 및 城邑一里

面·里	總 數		耕種外農業經營	1 段步未滿		1~3段步未滿		3~5段步未滿	
	家口數	面積	農 家 戶 數	家口數	面積	家口數	面積	家口數	面積
表善面	2,140	27,384	74	19	16	138	231	224	830
城邑一里	276	3,662	30	2	1	3	7	20	82

5 段步~1町步未滿		1 町步~2 町步未滿		2 町步~3 町步未滿		3 町步以上	
家口數	面積	家口數	面積	家口數	面積	家口數	面積
493	3,321	783	10,748	275	6,553	134	5,685
66	524	101	1,646	44	1,025	10	377

○ 1972年末

○ 資料：表善面事務所

<表1-9> 農家戶數 및 人口

城邑一里

戶 數			農 家 人 口			非農家人口			人 口 總 計		
農 家	非農家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276	5	281	534	672	1,206	32	21	53	566	693	1,259

○ 1972年末

○ 資料：表善面事務所

〈表1-10〉 年度別 農家戶數 및 人口

城邑一里

年 度	戶 數			農 家 人 口			非 農 家 人 口			人 口 總 數		
	農 家	非農家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1970	275	14	289	568	661	1,229	26	29	55	594	690	1,284
1971	270	14	284	554	657	1,211	27	31	58	581	688	1,269
1972	269	12	281	538	631	1,169	28	34	62	566	693	1,259

○ 1972 年末

○ 資料：表善面事務所

〈表1-11〉 所 得 現 況

城邑一里

作物別 區 分	米 穀	麥 類	雜 穀	豆 類	薯 類	柑 橘	畜 產	油 菜
面積(反)	345	950	182	287	823	119		1,056
數 量	34 t	180 t	18 t	11.2 t	777 t	3,18 t	大家畜591頭 小家畜761頭	131 t
租 收 益 (천원)	4,080	11,316	1,440	672	24,208	848	24,496	18,864

作物別 區 分	무우말림	林產物	堆 肥	一般特作	青 茅	總 計	備 考
面積(反)	155			92			面戶當收益 385
數 量	8.5 t	191 t	2,634 t	88.3 t	12,000 束		천원
租 收 益 (천원)	423	727	5,268	1,444	4,800	98,586	里戶當收益 375 천원

○ 1972 年末

○ 資料：表善面事務所

<表1-12> 年度別 畜産現況

城邑一里

年 度	소	고기소	산 양	돼 지	개	닭	말
1972	398	34	55	205	101	544	123
1972	480	110	102	91	108	212	34

○ 1972 年末

○ 資料：表善面事務所

<表1-13> 農事改良俱樂部 運營狀況

表善面 및 城邑里

區 分 面·里	俱樂部數	部 員 數			指 導 者 數		
		男	女	計	男	女	計
表善面	9	73	-	73	9	-	9
城邑里	1	7	-	7	1	-	1

○ 1972 年末

○ 資料：表善面事務所

<表1-14> 4H俱樂部 運營狀況

表善面 및 城邑里

區 分 面·里	俱樂部數	部 員 數			自願指導者數		
		男	女	計	男	女	計
表善面	13	124	112	236	18	13	31
城邑里	1	10	10	20	2	1	3

○ 1972 年末

○ 資料：表善面事務所

VIII. 歲時風習

濟州의 歲時風習은 도내 어디서나 大同小異하다. 城邑의 경우 역시 특이한 歲時風習이 現傳되는 바 별로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歲時風習이 본격적으로 정리될 때 城邑의 歲時風習 또한 自明해질 것이다. 시일의 여유가 없어 상세한 조사는 후일로 미루기로 하고 城邑 歲時風習을 음력에 따라 간추려 보기로 한다.

陰正月

○ 1月1日, 설빔

예전에는 廣木·무명 따위 옷감으로 집에서 손수 지어 입었으며, 물감도 집안에서 들었었다.

○ 1月1日~2月末, 歲拜

예전에는 歲拜慣行이 광범위했고, 철저했으며 장기간에 걸쳐었다. 친족어른과 마을의 尊長은 물론 妻族과 外戚까지 꼬박꼬박 세배했었는데 妻家歲拜는 복숭아꽃이 피어야 간다는 속담까지 전한다.

○ 1月1日~5日, 床보기

作故하여 아직 3年喪을 치르지 않은 마을 안 故人의 床을 찾아 세배 드리며 상제와 인사를 나눈다.

○ 正初, 結궁

매년 음력 12월 25일에 열리는 里民大會의 결의에 따라 <결궁>을 실시한다. 몇해에 한번씩 마을 共用的 公金이 필요한 때 그 방편으로 시행하는 바, 최근의 경우로는 1969년도에 마을 주최로 <안할망당>의 큰 곳을 치르기 위해 그 소요 경비를 마련한다고 <결궁>을 했었다. (IV. 傳承文化 <결궁>參照)

○ 正初, 土亭秘訣

歲拜 다닐 때 마을의 尊長은 그 답례로써 土亭秘訣을 보아 준다.

○ 正初, 콩웃놀이

강낭콩 따위로 옷을 만들고 그해 身數를 점쳐 보기도 하며, 正初의 한갓 娛樂으로 삼는다.

○ 正初, 투전놀이

1930년대까지만 해도 正初가 되면 鬪錢놀이가 성행했었는데, 가끔 도박성을 띠어서 家産이 탕진되는 일도 있었다.

○ 正初, 할망당 가기

한해동안의 身數大通과 가족들의 無恙을 위하여 마을의 아낙네들은 거의가 <안할망당> 등에 가서 빈다.

○ 正初 포제

마을 西北쪽에 있는 포제동산에서 포제를 지낸다. 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正月 初丁일에 지내는 게 常例다.

○ 正初, 멧돌, 방아질 삼감

正初, 특히 丑日에는 멧돌을 갈거나 방아 찧기를 삼간다. 만약 멧돌, 방아질을 하면 소가 빵아지거나 찧어지는 格이므로 소가 앓는다는 俗信이 있다.

○ 正初, 장 담그기

반드시 酉, 戌일에 장을 담가야 한다. 만약 辰, 巳일에 장을 담그면 그 간장, 된장 맛이 없어진다고 俗信하고 있다.

○ 1月1日~3月末, 연날리기

예전에는 어린이들은 물론이요, 어른들까지도 正初에서 2, 3개월간 연날리기를 즐겼다. 1月15일에는 소위 <연방쉬>라고 해서 厄運을 멀리 내보내는 뜻으로 연을 멀리 띄워 보냈었다.

○ 正初, 金品 안내기

正初에는 될 수 있는대로 金品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正初에 金品을 바깥으로 내게 되면 한해 운수에 惡影響을 끼치게 된다고 觀念하기 때문이다.

○ 立春日, 春榜

立春日 立春時에 春榜을 집안 여러곳에 써 붙였었다. 1930년대초까지는 大門을 비롯한 대청마루와 여러방·부엌·상갓기둥, 심지어는 외양간까지 써 붙였었다. 지금은 가다가 春榜을 써붙이긴 하지만 썩 간소화되어 버렸다.

○ 立春日, 符籙 붙이기

立春日, 立春時에 알맞은 곳에 符籙을 붙인다.

○ 立春日, 女人外出禁忌

立春日 女人들의 나들이를 삼간다. 만약 <알짚은 예편>(陰毛가 많은 女人)이 방문하면 그집 곡식밭에 김이 무성해진다는 俗信이 있다.

○ 立春日, 去來禁止

立春日에는 금전거래를 전혀 삼간다.

○ 1月15日, 除厄

土亭秘訣에 年運이 나쁘게 드러나면 몇가지 방법으로 除厄을 한다. 첫째 자기집 안채 지붕에 종이나 헝겊으로 된 赤色旗를 꽂는다. 둘째 양푼모양의 질그릇(장태)에 물을 부어 안채 지붕 위에 올려 얹는다. 셋째는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거기에 돈·紙錢·메·미역·魚炙·無色헝겊 등을 넣어 새갈랫길이나 네갈랫길에 두어 둔다. 이 허수아비를 처음 보고 놀라는 분에게 厄運이 돌아간다고 믿고 있는데 이를 <도채비방쉬>라고 한다.

陰二月

○ 寒食日, 先墓 손질

寒食名節날을 택하여 先墓의 손질을 한다. 비석을 마련하여 세우기도 하며(立碑는 清明日에도 치른다) 封墳 둘레의 네모 돌담을 고쳐 쌓는 일, 혹은 封墳 손질 등을 한다. 이날은 先墓에 어떠한 손질을 했어도 탈이 없다고 관념하고 있다.

陰三月

○ 3月1日~14日, 時祭

關聯된 친족들이 모여 祭祀가 止祭된 先祖의 墓를 찾아가서 墓祭를 치른다. 이 時祭를 치르는 날짜는 家門마다 다른데 時祭舉行의 所要經費 마련을 위해 거리가 宗中田을 사들이고 小作料 등을 확보하는 게 常例다.

○ 中旬, 미역 캐기

表善里 第1種共同漁場에서 미역을 許採(解警)하는 날, 表善里로 내려가서 그 마을 海女들이 캐던 나머지를 채취해 와서는 먹곤 한다.

陰四月

○ 4月8日, 첫돌애 머리깎기

첫돌이 된 애의 머리를 가급이면 4월초과일에 깎는다. 초과일에 깎아야 머리가 깨끗하고 탈이 없다는 俗信이 있어서 첫돌이 아니더라도 애들 머리깎기는 흔히 이날을 택한다.

陰五月

○ 5月5日, 그네뛰기

端午名節날 마을의 젊은 여인들이 마을안 느티나무 등에 그네를 매고 그네 뛰기를 한다. 이 지방에서는 그네를 <쿨메>라 하는데 벌써 사라진 풍습이지만 예전에는 이 고을의 妓女들이 운치있는 그네뛰기를 했었다 한다.

陰六月

○ 6月20日, 닭補身

엥간히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일부러 닭을 사서라도 이날 가족들의 補身을 위해 닭을 잡아 먹는다.

○ 下旬, 갈옷 짓기(감물 들이기)

<갈옷>이란 제주도 固有의 풋감을 짚어서 물들인 勞動服이다. 여물어 가는 풋감을 터알 감나무에서 따서 함지박 따위에 넣어 뺨은 감물에 옷을 적서 말리고 <갈옷>을 만든다.

陰七月

○ 7月7日, 七夕비

7月七夕날은 「임금대왕 돌아가신 날」이라 해서 비가 내리기를 바란다. 비가 내리면 그해는 登豐한다고 믿는다.

○ 7月7日, 물 맞기

물 맞기가 건강에 유익하다 해서 七夕날 마을 사람들은 한라산쪽 자그만 폭포가 떨어지는 곳으로 물 맞으러 간다. 주로 아낙네들이 물 맞기를 즐겨하는데 城邑에서는 新山里 <분드르>(전분공장 터)로 나가 물을 맞는 게 常例다.

○ 7月7日, 마플림

집안의 온갖 衣類, 寢具를 비롯한 書冊과 家具 등을 마당에 끌어내어 햇볕에 쬐고 먼지를 털어 손질한다. 5월장마에 따른 더럽힘을 없애자는 일이므로 <마플림>이라 하는 것이다.

○ 百中日, 牛馬祭

農畜管掌神인 <맹감山神>에 대한 致祭다. 마소를 치는 집에서 그 주인들이 祭需를 차려 마소를 놓아먹이는 밭에 나가 제사한다. 떡(메밀떡·밀떡) 祭酒·魚炙·메 및 닭 한마리 등의 祭需를 차리고 마소 주인들 가운데서 祭官

을 선발하여 치르거나 아니면 모든 마소 주인이 祭官이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치러진다.

○ 百中日, 호박·박줄 치기

호박이나 박이 잘 열리도록 百中날 저녁에 호박줄이나 박줄을 막대기로 딱딱 친다.

陰八月

○ 8月1日~30日, 掃墳

가까운 親族끼리 先墓를 찾아다니며 掃墳을 한다 入島先祖거나 입도선조로부터 數代까지의 소분은 <都掃墳> 혹은 <모듬掃墳>이라 해서 보통 8월1일에 各派親族들이 의무적으로 공동 참가하여 실시한다.

○ 下旬, 冬柏기름 짜기

동백나무에서 따 두었던 동백열매로써 기름틀(搾油機)로 동백기름을 짠다. 이제도 가끔 동백기름을 짜지만 예전엔 아낙네들의 머리 치장에 높이 평가되는 소중한 기름으로서 못 여인들이 썩 애지중지했었다.

陰九月

○ 9月9日, 심방굿

巫祖가 태어난 날이라 해서 심방들의 집에서 큰 굿을 한다. 부락민들은 굿하는 데 찾아가 인사하고 부조하는 게 예의요 의무처럼 되어 있다.

陰十月

○ 中旬 牛馬 烙印

秋收가 끝난 10月中旬 甲子日을 택하여 家門別로 제각기 다른 標識의 烙印을 마소마다 찍은 다음에 방목한다.

陰十一月

○ 下旬, 지붕 이기

머밭에서 베어온 머로써 지붕을 이다. 화창한 날 미리 지붕을 얹을 머줄을 마련해 두었다가 지붕을 이는데 家屋마다 隔年으로 이어야 한다. 한 울타리 안에 안채(안거리) 바깥채(밖거리)가 있으면, 매년 1가옥씩 이어야 한다.

○ 下旬, 祭酒 빚기

부엌 안 <불치>(검부러기 따위를 태우는데서 생긴 잿더미)가 있는 데 술독을 얹히고 祭酒를 담근다. 좁쌀로 떡(오메기떡·침떡 등)을 만들고 淸酒를 빚는데

2, 3년 묵은 淸酒일수록 값어치 있게 본다.

陰十二月

○月中, 평사냥

마을 사람들이 몇사람씩 그루우프를 짜고 개를 데려서 漢拏山麓으로 나가 평사냥을 흔히 했었다.

○月中, 雪寒占

겨울철에는 춥고 降雪이 심해야 상서롭고 登豐하지, 만약 너무 따스하고 降雪이 없으면 凶事가 잦고 凶年이 든다는 俗信이 있다.

○下旬, 新舊間

大寒後 7일부터 立春前 3일까지 6일동안은 諸般人間事를 관장하는 神들이 교체하는 동안이라 하여 <新舊間>이라 한다. 平常時에는 탈이 많은 일들이라도 이 기간에는 神의 관여가 없다 해서 移徙, 家屋修理, 移墓 등을 일제히 실시한다.

○臘日, 臘平엿

冬至後 第三戌日인 臘平날에는 수수·좁쌀·참쌀 따위로 엿을 달인다. 이 엿은 補身하거나 腫氣를 치료하는 데 쓰이며 腹痛을 앓을 때에도 燒酒에 타서 먹는다.

○20日頃, <접새>(契牛)잡기

契의 一種인 <산담접>(V. 社會 1. 概觀 參照) 등의 收益으로 <접새>(契牛)를 사 기르다가 이 소를 잡고 契員들에게 均配한다. 契員들은 이 쇠고기로서 설을 쇠고 나머지 牛肉은 항아리에 조림해 두었다가 한해동안 忌祭時 祭需로 쓴다.

○12月25日, 鄉會

鄉會, 곧 里民大會를 반드시 12월 25일에 연다. 1년의 決算 및 里運營 經過報告, 新年計劃樹立, 醮祭 祭官 選定 등 里行政上 주요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다가오는 年初에 <결궁>을 시행하느냐의 여부도 결정하며 <안할망당> 굿을 하느냐의 여부를 논의하기도 한다. 警民長 制度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1년중 두드러지게 褒賞, 懲戒할 대상자에게 賞罰도 시행했었는데 그 가운데도 <명석말이> 징계는 엄격한 것이었다.

○末日, 그믐날 지내기

借用金を 지불하는 등 모든 거래의 청산을 한다. 밤에는 잠을 자면 눈썹이 흰다고 서로 歡談・娛樂하며 밤을 밝힌다.

○ 末日, 묵은 歲拜

出嫁했거나 出他한 자녀들이 衣服 등의 선물을 마련하고 부모를 찾아 인사한다. 한해동안 신세진 분에게도 간단한 선물로써 사례하고 인사한다.

○ 末日, 칼국

선달 그림날 저녁 메밀로 <칼국>이라는 국수를 만들어 가족들이 먹으며 즐기고, 부모가 別居할 경우는 부모댁에 이 <칼국>을 갖다 드린다.

IX. 通 過 儀 禮

제주도 전반에 걸친 도민의 通過儀禮는 필자가 1966년 가을 1차 조사보고한 바 있다. (그 調查報告書는 無形文化財 指定資料 第23號 「濟州島民의 通過儀禮」, 1966년 10월) 通過儀禮 역시 도내 어디서나 비슷비슷하다. 지역과 마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없는 바 아니지만 근원적인 차이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앞 調查報告書를 바탕으로 城邑一里의 通過儀禮를 質疑形式을 통하여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城邑에서 역시 도내의 다른 여러 마을들의 通過儀禮와 거의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城邑의 通過儀禮를 개관하려면 이 조사보고서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婚禮와 葬禮에 대하여 實例 몇 가지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칠까 한다.

(1) 婚 禮

○ 이바지

約婚이 되면 婚禮에 앞서 新郎宅에서 新婦宅으로 혼례에 소요되는 物資를 일부 보냈었는데 이를 <이바지>라 한다. 소에 싣고 동네 하인들을 시켜 혼례를 치르기 앞서서 新婦宅으로 보내어지는 이 <이바지>제도는 城邑에서 사라진 지가 벌써 50년이나 되었다. 宋之俊氏(남. 75세)의 경우, 결혼할 때 보내었던 <이바지>는 다음과 같다.

○ 돼지 1頭, ○술 1樽, ○달걀 20個.

필자의 앞에는 報告書 38면을 참조하면 宋씨가 치렀던 <이바지>의 品目과 數量은 그 당시로 보아 凡常했던 것이다.

○ 新婦 持參物

宋之俊씨 부인의 경우 그가 혼인할 때 준비했던 品目은 이불 한채와 베개 하나였다. 이불에 따른 요는 1910년경부터 생기기 시작했었으니, 그 당시로서는 대중화되지 않았었다 한다.

○ 通婚圈

通婚圈은 이미 住民構造에서 대중 살펴 보았다. <表2~12>에서 본 바와 같이 城邑里 주민들 가운데 부인들의 親庭 調査를 해 보았더니 里內가 65%로 단연 많고, 다음이 表善面을 제외한 南濟州郡內(21%), 表善面內(9%)의 順이다. 南濟州郡을 제외한 道內는 4%뿐이며, 道外에 親庭을 둔 여인은 단 1%에 불과하다. 古來로 중요한 通婚圈은 里外인 경우 新豐, 蘭山, 加時, 表善, 下川, 三達, 衣貴 등인데 이 지역들로 쏠린 까닭은 모두가 가까운 거리라는 점에 있는 줄 안다.

○ 結婚對象者

지금은 價値意識의 改變과 社會風潮의 영향 등으로 결혼대상을 고르는데 結婚當事者의 의견이 절대적이지마는 예전에는 여느 마을에서나 마찬가지로 사정이 달랐다. 城邑의 경우, 다른 마을에 비해 班常意識이 두드러진 면을 찾을 길은 없으나 적어도 門閥은 철저히 가려 婚姻했던 것만은 사실인 듯싶다. 子婦만은 常民의 女息이라도 딸의 出嫁對象은 名門을 골랐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부모의 觀點인데 다른 마을보다 이런 의식이 더 강했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또한 이처럼 門閥을 가리던 지난날에 있어서는 兩班이면 部落外婚을 하는 수가 많았고 常民이면 部落內婚의 비율이 높았었다 한다.

○ 初婚年令

初婚年令에 대해서는 住民構造 속에서 잠깐 다룬 바 있다. <그래프 2> 및 <表 2~13>을 다시 살펴 보면 짐작되 듯, 첫째 高令일수록 初婚年令이 낮고 젊은층일수록 初婚年令이 높다. 이것은 전국 공통의 현상이므로 城邑 住民만의 특성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城邑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20세를 頂點으로 결혼한다는 통계 결과는 이 마을 주민이 다른 마을에 비해 早婚傾向이 짙음을 드러낸다.

(2) 葬禮

○ 골

제주도에서는 어느 마을이든 葬禮時 勞力動員 대상범위가 획정되어 있다. 그것은 대체로 자연부락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그 葬禮組를 <골>이라 일컫는다. <골>안에 葬禮가 있게 되면 각가호에서는 만사 제쳐놓고 적어도 한분씩은 連喪, 埋葬, 산담쌓기까지 치러야 하는 엄격한 의무가 있다. 城邑1리는 다음과 같이 네골로 나누어졌다.

○ 상골~1, 2, 3, 4, 5, 6, 7班

○ 하골~18, 19, 20班

○ 동골~8, 9, 10, 11, 12班

○ 서골~15, 16, 17班

<골>주민의 勞力負擔을 제공받는 일을 <골 부린다>고 말한다. 보통 한<골>을 동원하는 게 상례지마는 山役이 힘겹다든지 성대히 치르고 싶어할 때는 두<골>, 혹은 마을 가구 전부를 동원하는 수가 있다. 마을안 전가구를 동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를 <都鄉부린다>고 말한다. 城邑1리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골 부리는>제도가 없어졌다. 그 이유는 <골>주민의 勞役을 빌었을 때, 그 폐단이 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장사치르는 날 <다포>(喪輿 앞에 매어질쪽 하게 앞으로 잡아당기는 바)로 무명 한 두필이거나 광목 반필을 喪家에서 마련하여 쓴 다음에는 <골>의 財產으로 바쳐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學棺배>도 물론 喪家에서 마련하였어야 하고 나중에는 造棺, 開壙木수에게 드려야 하니 喪家の 부담이 너무 과중했던 것이다.

○ 都鄉

마을안 온 가구를 장례치를 때 상가에서 勞役비는 일을 <都鄉 부린다>고 한다. 막대한 경비가 들므로 名門이면서 생활이 워낙 유족해야만 가능했던 일이다. <都鄉>부리게 되면 그 가구에 1人役의 壯丁이 있든 없든 각가구마다 여인이라도 1인 이상 반드시 出役해야 한다. 이처럼 <都鄉> 부리는 葬禮習俗은 封墳을 훌륭히 쌓고 <산담>도 의젓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일 수도 있으나, 家門의 威勢를 드러내려는 뜻이 컸었던 것 같다. 이처럼 <都鄉> 부리는 慣習은 1940년까지 城邑里에서 전승되었었다. 宋之俊씨(남. 75세)의 말에 따르면 1940년 그의 祖

父喪을 만나 葬禮時 <都鄕> 부리었던 게 마지막이었다는 것이다. 喪家인 宋之俊씨 집에서 황소 한마리를 마련하여 間喪客들을 맞이하고 香徒를 접대했었다 한다. 그 장사 때에는 또한 城山邑 三達里 분을 招致하여 달구소리를 부르게 했었다 한다. 그리고 소라껍질을 삶아서 충분히 빵고 그 재를 진흙에 섞어 짙은 것을 壙中棺 주변에 메꾸는 등 훌륭한 장사를 치렀다는 것이다.

○ 初喪時 女息의 負擔

父母喪을 만났을 때 女喪制로서의 負擔慣習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 漢拏山 北 일대 및 南郡의 여러 지방에서도 女喪制는 發軔하기 전날 申時에 永訣을 고하는 日晡祭의 제수를 부담하는 게 상례다. 그러나 城邑을 포함한 表善面과 南元面 일대에서는 日晡祭를 喪主를 비롯한 男喪制가 역시 차려 지내고 장사하는 날 香徒의 조반은 長女喪制가 차리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 墓地 位置

城邑里 주민들은 어디에다 墓地를 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先墓 位置를 집계해 보았다. <表2~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里境內가 9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역시 널따란 들판을 지니고 있으므로 里地境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여부터 없었던 터였겠다.

<表2~23> 先 墓 位 置

位 置	城邑一里														計	
	城邑里	表善面		城山邑		西歸邑			道內(南郡外)				他 道			
		加時	細花	新豐	三達	新孝	西烘	上孝	終達	高山	舉瑟浦	濟州市	全北	全南		
家口數	192	4	1	1	3	2	2	1	1	1	1	1	1	1	1	212
		5		4		5			4				2			
%	90.6	2.4		1.9		2.4			1.9				0.9		100	

○ 1973年 7月末 現在

○ 資料：現地調査